

[동아일보 제3대 사장 취임시 취임사]

本報의 過去를 論하여 讀者 諸氏에게 一言을 寄하노라

[東亞日報] (1921년 10월 15일)

本社에 就任한지 月로 計하여 三朔에 跨하고, 日로 數하여 百日에 達하도다. 그러나 殘務의 整理와 餘冗의 收拾으로 因하여 一沫의 例辭가 無하게 됨은 어찌 遺憾이 아니랴. 本報의 創設이 一年이요 七個月이라. 그 동안 障害도 많았으며 困乏도 많았도다. 그러나 이에 不拘하고 讀者의 數가 幾萬에 達하며 社員의 數가 百名에 及하니 蕭條한 우리 社會에 있어서는 浩大한 機關이요 一種의 光明이라 하겠도다. 그 所由來와 그 所以然이 如何한가. 本社의 發展을 企圖하는 우리는 冷靜한 態度로 思考할 必要가 有하도다. 第一은 時代의 產物이니 越在 數年에 歐洲의 大亂이 方熄하고 平和의 曙光이 發現하여 改造의 精神과 解放의 思潮가 全世界의 洋溢한지라 沈鬱에 沈鬱을 積하고 苦悶에 苦悶을 加하여 暗中에서 摸索하고 迷路에서 彷徨하던 우리 民族의 思想界가 衰弱한 元氣를 更張하려 하며 疲困한 神經을 亢進하려 하니, 此에 順應하여 民族의 表現機關으로 本報가 誕生된지라 이 곧 天下의 同情이 集中된 所以이며, 第二 株主 各位의 熱誠이니 本報가 創立된지 幾月을 不過하여 財界의 恐慌이 掩襲하매 林立叢生하던 各種會社가 破産이 頻頻할 뿐만 아니라, 個人間 貸借도 困難한 時期를 際하여 求利의 道가 薄하고 經營의 難을 覺悟하면서도 그 信用을 盡하며 囊을 傾야 經濟界 大勢의 逆流를 不拘하고 本社가 株式會社로 成立되었나니, 이것은 다 株主諸氏의 公에 厚하고 私에 薄하여 義를 慕하고 利를 輕히 여기는 熱誠中으로 出來한 것이라, 余는 讀者諸氏로 더불어 敬意를 表하는 것이다. 第三 幹部諸氏의 努力이니 基督曰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심과 같이 世上事는 金錢으로만 計算하는 것이 아니외다. 本報가 三大綱領을 提唱하여 간간악악한 論旨와 正正堂堂한 筆法으로 世路의 險峻을 突破하며 大勢의 歸趨를 洞察하여 眞理를 闡明하고 虛僞를 排斥하며, 是非를 較判하여 善惡을 褒貶하며, 美는 鑑賞하고 醜는 厭避하니 於是 社會가 正論을 得하고 人衆이 歸向을 定하였도다. 이것은 다 學識과 經驗이 豊厚하고 品性이 高潔한 幹部諸氏에게 所負한 바 多大하도다. 그러나 良馬가 過하여도 伯樂이 不顧하면 駑馬에 等하고, 棟梁이 立하여도 良工이 衰乏하면 樗과 無異하니, 如何히 時代의 潮流가 急動하고, 經濟의 狀況이 良好하고, 幹部의 努力이 勇壯하다 할지라도 讀者諸氏가 一年 一日과 같이 愛讀하신 誠力이 缺하였으면 어찌 過去의

良積을 期하였으리까. 元來 本報는 一黨一派의 政略上 施設이 아니라, 十三道를 網羅한 四百餘 株主의 共同經營이며, 一人一家의 私論偏見이 아니라 二千萬 民衆의 公議 公論을 表現하는 機關이외다. 勿論 個人과 個人間에는 利害의 背馳도 有하겠고, 感情의 差別도 有하겠고, 地方에 따라서 習慣의 相違도 有하겠으나, 同一한 歷史와 同一한 言語와 同一한 地境에 處한 우리는 반드시 共通된 利害點이 有하리로다. 이 곧 二千萬民衆의 公利며 公害라 本報의 使命은 公利는 어디까지든지 주장하며 保護할지요, 公害는 어디까지든지 排斥하며 防禦할지니,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本報는 二千萬 民衆의 公有物이외다. 그러므로 本報를 愛護함은 卽 自己를 愛護함이요, 本報를 排斥함은 卽 自己를 排斥한다 하여도 過言이 아니라 하나이다. 그러므로 本報가 讀者 諸氏에게 對하여 愛護와 同情을 求함은 義務뿐 아니라 權利이며, 또한 讀者 諸氏가 本報의 錯誤된 點에 對하여 批評을 下하여 忠告를 發하는 것도, 權利뿐 아니라 義務라 하노라. 다만 前路가 險峻하고 群妖가 縱橫하는 이 社會 이 時代에 處하여 如何히 하였으면 本報의 使命을 完全히 할까, 이 곧 株主諸氏와 社員一同과 讀者諸氏와 같이 協調 共鳴하여 討究하고 努力할 바외다. 余는 知識이라면 空疎뿐이요, 經驗이라면 失敗뿐이외다. 그러나 二千萬民衆으로 같이 立하며, 같이 起하며, 같이 怒하며, 같이 喜하며, 같이 哀하며, 같이 樂하려 하는 一片의 微誠만 가지고 本社의 美良한 從僕이 되려 하오니 諒察하소서.